

한류를 통한 중국네티즌들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연구

김 옥 순
단국대학교 강사

- | | |
|-------------------------|------------|
| I. 서론 | V. 결론 및 제언 |
| II. 한류를 통한 한국무용 | 참고문헌 |
| III. 중국 인터넷에 나타난 한국무용분석 | Abstrac |
| IV. 중국네티즌들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 | |

I. 서론

1. 연구 목적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정보혁명'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우리의 생활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빠른 속도의 변화는 한류(韓流)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엄청난 속도로 아시아시장을 잠식시켰던 한류는 2007년 말을 전후로 그 흐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예컨대 2009년 4월 5일을 기준으로 중앙도서관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한류'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수행한 결과 2007년을 기점으로 그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차원에서 문화적 교류가 개인의 영리목적에 더욱더 편향됨에 따라 문화적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진출과 미래의 대안적 제시가 없는 가운데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성화 방안에만 치중한 결과로 특히 진정한 한류로서 성장하기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간의 문화교류가 아닌 민간 대 민간간의 교류로 인

한 상업위주의 교류방식으로 최근 가수 비가 하와이에서의 법적 공방까지 가는 사태는 그 부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예술인 한국무용이 대중예술을 통한 한류에 가치 편승하여 세계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과 그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체계적인 자료를 토대로 제2의 한류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전통무용에 있어 대중의 인식도 연구와 한·중 대학의 무용교육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그리고 문화상품으로서의 전통예술 공연의 발전 가능성 연구인 신흥주, 장미나, 김세연 등을 통한 연구들¹⁾은 단순한 설문조사를 통한 인지도정도를 파악한 연구와 두 나라의 무용교육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구체적 대안으로서의 교육적 방법이 부재한 상태로 연구의 결과가 진행됨으로서 다양한 방법적 모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전통예술 공연의 발전 가능성 연구에서는 전통예술이 갖는 예술적 가치보다는 단면적인 공연의 결과물만 제시함으로써 상업적 가치에만 그 역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서의 방향에만 기존의 학문분야가 선행되었고 문화적 맥락에서의 교류 등은 미흡한 수준으로 진행됨으로서 진정한 가치로서의 한류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으며 특히 순수예술이 제2의 한류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안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혁명이라 할 수 있는 21세기의 인터넷을 중심으로 중국내에서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을 한국거주 중국유학생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제2의 한류로서의 가능성을 찾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한류’란 중국의 언론 매체가 만들어 사용한 용어로서 중국, 타이완, 홍콩 등의 중국 문화권에서 일어난 한국의 대중문화 유행 현상을 가리킨다²⁾. 최근 공연되어졌던 군인뮤지컬 「마인」³⁾에서 주인공

-
- 1) 신흥주(2005). 한국무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장미나(2004). 한·중 대학의 무용교육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김세연(2005). 문화상품으로서 전통예술 공연의 발전 가능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2) 이은숙(2002).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고찰」에 따르면 한류라는 단어는 1990년 11월 북경칭니엔바오(北京青年報)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에 간헐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하였는데 중화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홍콩 주간전문지 ‘아주주간(亞洲週刊)’이 2001년 6

역을 맡은 강타를 보기위해 비행기를 타고 단체관람을 오는 중국인들의 모습은 ‘한류’가 지닌 엄청난 문화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기간 내에 지층을 잠식시키는 홍수와도 같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곳은 범람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홍수를 막기 위한 제방(堤防)을 쌓고 하수구를 뚫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무분별한 진출과 대안 없는 한류는 홍수가 범람하듯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에게는 커다란 위험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류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여 진정한 한류로서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고 민간차원에서의 대중예술이 순수예술과 결합하여 제2의 한류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한국무용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민간교류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조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컨대 이윤을 위한 교류에서 벗어나 국가 상호간의 교류와 각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한 문화의 이해를 높이는데 앞장서 나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네티즌들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 대안을 찾고 이윤보다는 국가 상호간의 교류를 통한 문화적 활로를 개척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며, 한국무용이 중국에 진출하여 우리고유의 문화를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관련된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및 2008년 12월 ~ 2009년 4월, 총 5개월에 걸쳐 한국과 중국 인터넷 포털 웹 사이트에 나타난 인터넷 기사 자

월24일에 한국 배우 김희선을 표지 모델로 하여 특집을 발간 한 것을 기점으로 광범위 하게 사용 되었다.

- 3) 「마인」은 국방부 건군 60주년 기념사업단과 육군본부, (주)뉴스컴퍼니에 의해 제작된 뮤지컬로 2008년 10월2일에 초연된 공연이다. 이 공연은 2008년 전국 6개 도시에서 공연을 한바 있고, 2009년 과천시민회관과 고양 어울림극장에서 1월30일에서 3월1일까지 공연 되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뮤지컬 「마인」은 매회 공연을 보는 중국인 단체관람객들의 모습 속에서 ‘한류’를 통한 강타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강타(본명: 안철현, 1979년 10월 10일~)은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대한민국 가수이다. 그는 동국대 영상영 화학부를 졸업하였으며, 1996년 부터 2001년까지 그룹 H.O.T.에서 보컬로 활약했으며 지금은 솔로로 활동 중이다. 그는 현재 국방의 의무를 받고 있다.

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I-V장으로 분류하였으며, II장 한류를 통한 한국무용에서는 ‘한류’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국내의 해외공연 현황분석을 『문예연감』무용부분에 나타난 2001년(한류라는 단어를 광범위하게 시작한 시점)~ 2007년 해외공연 현황분석을 통해 한류와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중국 인터넷상에 나타난 한국무용의 성과를 살펴서 한국무용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한국거주 중국 유학생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무용의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한국무용이 제2의 한류로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에 대한 학문적 정당성과 타당성의 신뢰도가 현시대의 무용학에 있어서 연구가 미흡하여 연구자의 편협한 관점에서 전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21세기는 무용문화의 르네상스 시대이다”.⁴⁾ 처럼 무용학에 있어 확장된 매체로써 인정하여 연구하고자한다. 둘째, 자료 분석에서 자료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쳐야하는 과정으로 동료 연구진의 검토과정을 들 수 있다. (Claser & Strauss).⁵⁾ 본 연구에서는 북경유학출신 교수 1명, 한국거주 석·박사과정 중국유학생 2명에게 자료의 수집과 분석, 해석과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한국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는 2009년 현재 지식 검색으로 인식하고 있고 네티즌 사용자수 1위인 <http://www.naver.com/> 네이버로 하며, 중국 인터넷 포털 웹 사이트는 2009년 현재 한국 보다 인터넷의 활용도가 낮아 연구자가 찾고자 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중국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하는 <http://www.sina.com.cn/> 신랑(新浪), <http://www.163.com/> 왕이(网易), <http://www.baidu.com> 바이두(百度)로 한정하였다. 셋째, 한류를 무용과 접목시킨 선행논문이 전무하여 문예연감에 나타난 해외 공연과 한류가 연관성이 있음을 전제하여 연구함을 밝힌다. 넷째,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으로 분류되는 한국무용에

4) 정의숙(2009). 한국무용예술학회 무용연구분과 주최 “무용학의 이해”라는 주제의 3월 월례특강 사회에서 인용.

5) 김윤희(2001). 여자중학생의 무용수업 인식과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0 재인용.

한정하여 연구할 것이다. 다섯째, 자료의 미흡함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자의 제시가 논제와 모순된 요인이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의 활성화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논문이 한류를 통한 한국무용의 선행논문의 기초자료가 되는 데 가치를 두며 미흡한 점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제언한다.

II. 한류를 통한 한국무용

1. '한류'의 개념 정의

한국의 면적은 약 22만 Km²로 지구 전체의 표면적의 0.044%에 불과한 반면 중국의 면적은 약 963만 Km²로서 세계에서 옛 소련,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인구수는 중국이 13억 2천 8백 63만 명, 한국은 4천 8백 22만 명의 인구조사가 나왔다.⁶⁾ 이처럼 중국과의 엄청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국에서의 문화적 이데올로기는 '한류'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흐름을 제시하였다. '한류'라는 거센 폭풍은 중국을 넘어 일본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과 미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우리의 대중예술이 갖는 창조성과 역동성 그리고 부드러움의 조화가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중국의 한류열풍의 선두주자인 클론, H.O.T, 안재욱,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장나라 등 중국의 대중문화에 우리 가수들의 진출은 젊은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갔으며 일본 역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통해 윤사마라는 배우를 알게 되었고 한국의 정체성과 부드러움을 느끼며 한국알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 역시 '한류'의 열풍이 몰고 온 우리 문화의 창조성과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미국을 진출한 박진영은 프로듀스로서 인정을 받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윈드걸스의 미국진출과 가수 세븐 등 미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한류'에 대한 개념정의를 파악해

6) 한국인터넷진흥원(2008). 「한·중·일 인터넷이용실태비교」 p. 3.

봄으로서 대중예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인 '한국무용'의 중국시장 진출에도 더 없이 소중한 계기가 되리라 판단된다.

'한류'가 한국의 대중문화 전파로 뜻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순재가 출연한 「사랑이 뭐길래」가 1997년 6월 중국 CCTV를 통해 중국 전역에 방영되면서부터다. 무려 1억 5,000만 명의 시청자를 TV앞에 불러 모았던 이 드라마는 이듬해 중국인 시청자들의 빗발치는 성화로 재방영될 정도로 히트를 쳤다.⁷⁾ 이처럼 '한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곳은 중국 북경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 방송기획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1999년 문화관광부는 한국가요의 홍보용 음반을 CD로 제작하였는데, 이 음반의 영어와 일어 버전은 「Korea Pop Music」, 중국어 버전은 「한류-Song from Korea」란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 당시 중국어 버전의 음반을 기획한 회사는 지난 97년부터 북경음악방송국을 통해 정규적으로 1시간씩 중국어로 진행되는 한국가요 소개 프로그램 '서울음악실(漢城音樂廳)⁸⁾의 제작과 운영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홍보용 음반의 타이틀을 논의하는 기획회의에서 북경영화대학 연출과 교수가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행을 총칭하는 '한류'라는 신조어에서 '한(寒)'을 '한(韓)'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타이틀을 '한류'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한류'라는 신조어는 '서울음악실'을 통해 북경, 상해, 광주 등 중국의 10개 주요 도시의 약 5억 중국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첫 전파를 타게 되었으며 99년 가을부터는 한국가수들의 노래가 담긴 '한류'라는 타이틀의 홍보용 한국가요 음반이 중국 전역에 배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의 언론은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현상을 보도함에 있어 '한류'라는 신조어를 인용함으로써 '한류'가 중국 대륙에서 한국의 음악, 드라마, 패션, 영화 등 유행 엔터테인먼트를 통칭하는 일반명사가 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⁹⁾ 이처럼 '한류'가 중국 속에 스며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7) 유상철, 안혜리, 정현목, 김준술, 정강현(2005). 「한류의 비밀」, (서울: (주)생각의 나무), p. 52.

8) '서울음악실'은 97년 3월 중국방송영화총국의 비준과 외교부의 승인을 거쳐 그 해 7월 3일 북경, 상해, 광둥, 천진, 칭도 등 5개 도시에서 주 3회 한국 FM음악 방송을 처음 시작하였는데 그 후 한국 대중음악 홍보에 힘을 기울여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 허 진(2002). 「중국의 한류 현상과 한국 TV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02 16(1), pp. 469-529.

가치관과 소비취향의 변화와도 직결되며, 이는 결국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국인의 가치관 및 소비취향의 변화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국인의 가치관 및 소비취향의 변화¹⁰⁾

환경변화→	가치관의 변화→	소비취향의 변화
-시장화, 사유화	-발전=서구화=현대화	-서구적 생활방식 추구
-사회계층 분화	-가정 중심의 개인주의	-유명상표, 유행에 민감
-정보화 ⇨ 문화개방	-배급주의	-운동, 오락 관심증가
-세계화 ⇨ 시장개방	-문화적 소비 중시	-세련된 도시풍의 이미지 선호
	-경제적 차별화	
	-개성표현 중시	

위의 도표에 나타나듯 중국의 가치관과 소비취향의 변화는 ‘한류’의 바람이 중국 시장에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양상으로 흘러갔으며 다양한 문화적 교류가 성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문화를 오락과 유행만 소개한다면 자칫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수예술인 한국 무용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한류’의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리라 생각한다.

2. 국내무용의 해외공연 현황분석

2005년 한 해 동안의 해외공연은 총91건으로 이루어 졌다.(<표 2 참고>) 이는 2004년도의 62건에 비교하면 29건이 늘어난 수치이다. 하지만 2006년과 2007년으로 갈수록 공연건수는 줄어들며 특히 2007년 한국창작무용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과정을 볼 수가 있다. 이처럼 변화되는 과정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개선책을 찾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장르별로 보면 한국무용이 창작과 전통을 합하여 2007년에는 31개 단체, 현대무용 29개 단체, 발레가 7개 단체, 여러 장르가 뒤섞인 기타 공연이 8개 단체였다. 한류의 흐름을 타고 2005년 많은 단체들이 중국

10) 심운환, 이한우(2006). 『동아시아의 한류』, 전예원, p. 82.

에서 공연을 하였지만, 2007년도의 현황을 보면 공연 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무용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래 <표 2>, <표 3>에서 보면 2005년에는 한국무용 계열이 49개 단체였으나 2007년에는 31개 단체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현대무용이 가파른 상승세를

<표 2> 국내무용의 해외공연 부문별 현황¹¹⁾

구 분	공 연 건 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한국전통무용	14	8	15	24	19	20	21
한국창작무용	15	32	20	16	30	21	10
현대무용	16	13	17	16	28	25	29
발 레	5	5	5	4	5	7	7
기 타	-	9	3	2	9	3	8
계	50	67	60	62	91	76	75

<표 3> 국내무용단 해외공연 국가별 공연현황

구 분	공 연 건 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동남아	5	6	2	13	10	9	7
서남아	-	-	-	-	-	-	6
미국, 남미	13	13	14	13	25	18	17
러시아, 중동	2	2	4	3	3	4	5
일본	11	26	15	10	25	9	12
캐나다	1	1	1	2	1	-	-
유럽	10	12	18	11	18	24	21
중국	5	6	4	8	8	8	5
호주	3	1	2	2	1	2	1
아프리카	-	-	-	-	-	2	1
계	50	67	60	62	91	76	75

11) 『문예연감』 2002-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고(2006-2007 혼합+복합공연을 기타에 포함시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무용의 전통과 창작에 있어 전통무용이 늘어난 반면 창작무용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을 <표 2>, <표 3>을 통해 잘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토대로 개선책을 찾아야 하며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이 주가 되는 한국무용의 경우는 그동안 주로 해외 여러 나라의 민속무용 페스티벌이나 국가 행사와 관련된 홍보사절로서의 공연단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2007년의 해외공연 양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남미 그리고 유럽 등으로의 진출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무용 부문에서는 예전무용단이 미국과 네팔, 국수호 디딤무용단이 레바논, 김영희 무트댄스가 태국, 정재만 벽사무용단과 임학선 댄스위가 중국에서 각각 공연을 가졌다. 한국무용단체들이 해외공연을 갈 경우 대부분 전통 춤을 토대로 한 작품 구성이 대다수인 것에 비추어 태국 공연을 시도한 김영희 무트댄스의 경우 1부에 전통 레퍼토리와 2부에 현대적인 성향이 강한 작품을 포함한 레퍼토리 구성으로 꾸며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한국무용 계열의 공연에는 직업무용단들의 해외공연이 단연 눈에 띄었다. 인천시립무용단이 태국과 중국, 미얀마와 인도 등에서, 대전시립무용단이 베트남에서, 국립무용단이 러시아와 호주, 뉴질랜드에서, 서울예술단이 그리스, 터키, 파나마와 브라질 등지에서, 제주도립예술단이 대만과 중국에서 각각 공연을 가졌다.

2007년 국내무용단 해외공연을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는 전년도인 2006년의 9건에 비하면 7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미국과 남미, 유럽 등은 전년도 대비 비슷한 공연을 하였으며 일본은 조금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거세진 여파와 함께 여러 나라들의 적극적인 문화 교류를 표방하고 나선 정책의 변화에도 기인한다. 하지만 2005년을 기점으로 우리의 순수예술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한류의 거센 바람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무용이나 발레가 전년도에 비해 조금씩 상승 활동을 보여준 원인은 무엇일 까를 분석할 때, 기존의 절제된 형태에서의 전통무용보다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무

대적 매커니즘이 관객들의 시선을 모으는 창조적 해석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요컨대 대중예술을 통한 ‘한류’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무대적 매커니즘의 집합체로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예술인 한국무용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중적인 무대의 화려함과 역동성의 부족으로 인한 전통의 중시에만 매달렸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고유의 전통을 살려가면서도 역동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무대를 선보인다면 순수예술인 한국무용이 그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중국 인터넷에 나타난 한국무용 분석

1. 중국에서의 한국무용에 대한 성과

한국의 영화나 TV, 음악 등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대중예술이 한류라는 바람을 불러일으켰지만 순수예술인 한국무용이 이러한 바람 속에 묻혀가는 작은 줄기에 지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서의 한국무용이 중국 예술제나 초청을 통해 성황리에 공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호응도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올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 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중국에서의 공연을 통한 성과를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p.11의 <표 4>는 2004년과 2006년 인터넷상에 게재되었던 중국에서의 한국무용공연에 관한 글들이다. 중국과의 교류를 통한 이러한 움직임은 대중예술에서 순수예술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점진적으로 한국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제는 지역마다의 교류로 그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p.12의 <표 5>에서 제시한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민족무용 앞에 ‘훌륭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공연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통해 형식적인 문구가 아닌 무용의 관

〈표 4〉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자료

	한국 민족춤 처음 모습으로 드러낸다
중국 인터넷 기사	오늘밤에 한국 단국대학교 김현숙무용단이 체남의 관객님들에게 멋진 한국 전통춤을 보여줄 것이다. 김현숙무용단은 한국에서 유명한 예술단체이다. 이 무용단의 예술감독 김현숙선생님은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군무(군무)할 때 선두에서 춤을 이끌었으며 한국에서 아주 높은 명성과 덕망을 가지고 있다. 이번엔 그들은 산둥예술학원의 초대를 받아서 며칠 동안 학술교류로 여기에 온다. 그들은 체남 관객들에게 한국적인 민족무용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부채춤, 장구춤 등, 한국무용가 김현숙은 “교류를 통해 상대방의 장점을 취하고 또한 자신의 단점은 보완한다.”라고 말한다. ¹²⁾
한국 인터넷기사	린슈엔 심천금수중화발전유한공사 부총경리(부회장)은 “전통 민족문화를 보존해온 한민족의 긍지를 보여주었다. 전문 무용인들의 열정적인 한국전통춤 공연은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관람소감을 밝혔다. 그는 예술단의 공연이 노천무대에서 한계가 있지만 춤사위는 물론 작품의 구조, 음악, 의상이 모두 훌륭했다. 이번 중국공연을 계기로 한국 문화와 상호교류하고 학습하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¹³⁾

극 포인트를 알려줌으로서 교류의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한국무용이 이제는 어느 정도 중국인들에게 알려짐으로서 대중예술뿐만 아니라 한국무용의 저변 확대에도 그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한류의 바람은 대중예술과 함께 순수 예술의 바람으로까지 확대되며 이는 현재 21세기의 바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의 토착적 뿌리 속에 우리 고유의 것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우리 문화로서의 전통이 그들 속에 흡수되어 순수예술이 가지는 한류로서의 전통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한국무용이 우리 문화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전통적 연구

12) <http://www.sdtv.com.cn/news/newsshow.jsp?xwbh=200412G2521&yblm=N002>
民族舞 今晚露真容
今天晚上, 韓國檀國大學金賢淑舞踊團將在濟南為泉城觀眾奉獻一場精彩紛呈的韓國傳統舞演出。
金賢淑舞踊團是韓國家喻戶曉的文藝團體。它的藝術總監督金賢淑女士, 曾是 1986年漢城亞運會和1988年漢城奧運會開幕式的領舞者, 在韓國享有極高的聲譽。此次他們是應山東藝術學院的邀請, 前來作為期兩天的學術交流演出。本次將與濟南觀眾見面的, 都是最具典型性的韓國民族舞蹈, 比如扇子舞、長鼓舞等。在自己的家門口, 就能欣賞到純正的韓國民族舞蹈, 這樣的机会實屬難得。
韓國舞蹈家 金賢淑: “在交流中取成補短… …”

1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084&arti...2006=09-28>

〈표 5〉 중국인터넷신문기사

한국무용단 다주까지 “시골로 내려간다” 훌륭한 민족무용 공연한다.

(기사 : 저우 루이, 실습생 : 왕 팡) 어제 저녁 한국 인천광역시에서 온 무용단이 다주시 문화예술 센터에서 훌륭한 한국 민족무용을 공연했다. 이번 교류활동은 중경시 인민정부와 한국 인천광역시 인민정부가 주최하며 중경시 인민정부사무소와 중경시 인민정부 신문사가 일을 맡았다.

어제 한국 전통복장을 입은 무용수들은 우선 〈모란무〉를 공연했다. 모란을 가지고 있는 무용수들은 신녀의 모습이었으며 좋은 음악과 반주를 통해 관객들을 아름다운 세계로 데려갔다. 이어서 무용단은 〈검무〉 〈복춤〉 〈부채춤〉 등의 전통 무용을 선보였다.¹⁴⁾

무용 〈천무〉 한국전통문화를 연출한다.

한국의 유명한 안무가 국수호가 안무한 한국대형무용 〈천무〉는 올림픽촌에서 공연을 끝내고 그치게 밤에 중산공원음악당에서 관객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격렬한 북소리에 발을 맞추어 〈천무〉의 장막이 열렸다. 〈천북대합주〉의 시작은 아름다움으로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북을 치고 춤을 추는 무용수들은 베이징의 관객에게 한국민족의 전통무용문화를 펼쳐보였다. 시처럼 그림처럼의 〈비조춤〉, 고아한 〈무이선인춤〉, 신기한 〈비천춤〉을 보였다. 격렬한 북소리와 음악은 관객들을 한국의 성대한 의식세계로 데려간다. 유쾌함을 느끼고 친인합일의 행복이 느껴진다. 유명한 안무가 국수호는 서울올림픽개막식의 무용 안무를 맡았다. 그가 이번에 연출한 〈천무〉는 베이징 올림픽기간을 통해 한국전통문화를 최대한 펼쳐 보이는 것이다. 무용 속에 한국문화뿐만 아니라 중국당나라시대 무용의 영향을 받은 것도 나타난다. 수많은 무용은 원래 하나의 전통형식에서 나온다. (기사 : 하오 이)¹⁵⁾

14) <http://cq.qq.com/a/20071217/000079.htm>

(記者 周睿 實習生 王芳) 昨晚, 來自韓國仁川廣域市的舞蹈團, 在大足縣文化藝術中心, 上演了精彩的韓國民族舞蹈, 据悉, 此次交流活動由重慶市人民政府和韓國仁川廣域市人民政府主辦, 重慶市人民政府外事慶公室和重慶市人民政府新聞辦公室承辦.

昨天, 身著韓國傳統服裝的舞蹈演員們首先奉上了舞蹈《牡丹舞》, 長袖大袍, 手持牡丹的演員們个个如同仙子, 在動听的音樂中把觀眾帶入一个异域的詩意世界. 舞蹈團還表演了《長劍舞》、《輕鼓舞》、《娜妮妮舞》、《扇舞》等傳統舞蹈.

15) <http://bjyouth.y.net.com/article.jsp?oid=42244204>

舞蹈《天舞》展現韓國傳統文化

由韓國著名舞蹈編導大師韓守鎬創作的韓國大型舞蹈演出《天舞》, 在結束了奧運村中的演出后前天晚上移師中山公園音樂堂, 受到現場觀眾的熱烈歡迎.

一陣激烈的鼓點拉開了《天舞》的帷幕, 從《天鼓大合奏》開始, 舞台上出現了一幅幅美妙的擊畫面, 或擊鼓, 或舞蹈, 將韓國民族的傳統歌舞文化展現在北京觀眾面前. 在演出中記者看到, 《飛鳥舞》的沈美如詩如畫, 《早依仙人舞》的沈雅, 《飛天舞》的神奇, 中山公園的舞台上展現了一幅幅韓國傳統歌舞的風情畫, 而激蕩的鼓聲和悠揚的樂聲把觀眾帶到韓國盛大慶典儀式當中, 感受人的歡樂, 感受天人合一的幸福.

著名編導韓守鎬是漢城奧運會開幕式的舞蹈編導, 他創作的這部《天舞》很大程度上是爲了在北京奧運會期間展現韓國傳統文化, 因此, 舞蹈所表現出來的除了韓國自己的文化外, 還表達了這樣一个歷史沿革, 那就是韓國的很多舞蹈受到中國唐代舞蹈的影響, 很多舞蹈出自一个傳統形式. 本報記者郝羿

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2.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

인터넷에 나타난 한국무용공연의 관람 후기와 한국무용에 관한 인식에 관한 자료 <표 6>은 중국 인터넷상에 나타난 한국무용에 대한 소개를 담은 글로서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아니라 한국무용에 대한 소개를 담은 홍보물로서 게재 되었다. 첫 번째 글에서 한류의 붐을 타고 한국무용이 어느 정도의 중국인들의 환경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으며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 역시 한류로서의 가능성을 비춰주었다. 네티즌들의 댓글 기사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으나 한국무용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에 관한 글들은 찾을 수가 있었으며 이러한 소개가 짧은 단문의 기사가 아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적 차원에서의 장문으로 쓰여 질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14의 <표 6>에서 보면 한국의 전통적 무용인 살풀이나 승무보다는 화려하고 역동성이 강한 부채춤이나 탈춤 등 볼거리 위주의 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 대중예술 특히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적 부분에서의 화려함과 역동성 그리고 무대의 스펙터클한 매커니즘이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서 한국의 문화적 모습을 담아내듯 한국의 순수예술 또한 정적인 무용보다는 동적인 무용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무용에 대한 소개가 동적인 무용들의 소개가 아닌 우리 고유의 전통을 지닌 살풀이나 승무, 궁중무용, 그 외 다양한 부분에서의 소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전문인들은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과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는 최근에 들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전통무용이 한국에서의 공연을 통해 교류의 폭을 확대시키며 '한류'를 통한 시작이 이제는 국가와 국가 그리고 지역과 지역간의 교류확대로 이어지며 인터넷 아츠뉴스를 통해 공연을 소개함으로써 인터넷상의 문화공간도 한층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그 예로 선원(神韻) 예술단의 2009 세계 순회 한국공연 소개가 아래 인터넷주소창에 나와 있다.(참조) <http://artsnews.media.paran.com/news/14173> 발행일:2009/01/25 11:48:55

〈표 6〉 중국 인터넷에 나타난 한국무용에 관한 홍보자료

한국예술에 관한 전반적인 특징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나라이고 예술 문화방면에서 그 특징이 있다. 한국 미술은 그림 서예 판화 공예 장식등이 있다. 민족의 특징을 계승하고 외국 미술의 특색을 받아들인다. 한국 미술은 동양화 서양화가 있으며 동양화는 일본과 비슷하다. 서예는 한국에서 우아한 예술방식중의 하나이다. 한국 사람들은 음악과 무용을 다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 음악에는 “민족음악”과 “서양음악”으로 나눈다. 민족음악에는 “우아한 음악”과 “민속 음악” 두 가지가 있다. 우아한 음악은 한국 봉건시대 궁정에서 제사, 연회 등의 여러 가지 음악을 말하며 “정악”과 “궁정월”이라고 한다. 민속 음악은 민요 농악 등이 있다. 악기는 현금, 가야금, 장고, 적 등이 있다. 한국 민속 음악의 특징에는 춤도 있다. 한국 무용수들은 어깨와 팔의 운율을 중요시하며 도구로는 부채, 화관(족두리), 복등

소품들을 많이 사용하며 한국의 무용은 민족무용과 궁중무용을 중심으로 한다 한국 연극은 원래 종교에서 나타나며 탈춤은 한국문화의 상징으로서 한국전통 희극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⁶⁾

한국전통무용 소개

당나라 궁전은 한국예술을 아주 귀중하게 여긴다. 고구려 무용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시인 이백의 시는 유명하며 〈고구려〉를 통해 노래로 부르고 거기에 맞춰 중국 고전에서 보유한 종목 중 하나인 고구려무용을 추었다

한국 궁중무용은 여러 가지 꽃과 새를 형상화 했다. 〈미인전목단〉, 〈학춤〉등 1418년 조선왕조국왕 세종은 문학, 천문학, 미술, 음악과 무용 등 아름다운 예술을 좋아했다. 그는 음악과 무용을 나누어 서로 옷을 바꾼다고 주장한다. 그의 손자에게 음악과 무용에 관한 책 『악학궤범』을 만들게 한다. 이 책은 예술에 나타난 무용동작, 의상, 도구, 악기 등 양식적인 면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것을 보존하는 것은 운이 좋다. 국립 국악원에서 이런 것을 잘 표현한 음악가도 있다. 원래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귀한 남자 ‘화랑’(신라 귀족 자제들)은 궁중녀 무용수들 보다 일찍 나타났으며 이들은 국왕 대신에게 춤을 추고 가끔 여자 황후에게 춤을 추었다.¹⁷⁾

16)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2-06/13/content-438328.htm>

韓國是個具有悠久歷史和燦爛文化的國家，在文學藝術等方面都有自己的特色。韓國的美術主要包括繪畫、書法、版畫、工藝、裝飾等，既繼承了民族傳統，又吸收了外國美術的特長。韓國的繪畫分東洋畫和西洋畫，東洋畫類似日本一樣，書法在韓國是一種高雅的藝術形式。韓國人素以喜愛音樂和舞蹈而著稱。韓國現代音樂大致可分為“民族音樂”和“西洋音樂”兩種。民族音樂又可分為“雅樂”和“民俗樂”兩種。雅樂是韓國歷代封建王朝在宮廷舉行祭祀、宴會等各種儀式時由專業樂隊演奏的音樂，通稱“正樂”或“宮廷樂”。民俗樂中有雜歌、民謠、農樂等。樂器常用玄琴、伽耶琴、杖鼓、笛等。韓國民俗樂的特色之一是配上舞蹈。韓國舞蹈非常重視舞者肩膀、胳膊的韻律。道具具有扇、花冠、鼓。韓國的舞蹈以民族舞和宮廷舞為中心，多姿多彩。韓國的戲劇起源於史前時期的宗教儀式，主要包括假面具、木偶劇、曲藝、唱劇、話劇等5類。其中假面具又稱“假面舞”，為韓國文化象徵，在韓國傳統戲劇中占有極重要的地位。

17) <http://www.ddcei.gov.cn/html/20050628162333802.html>

唐朝宮廷非常珍視韓國藝術。古典保留節目中有三種高句麗舞蹈，其中兩種由於得到詩人頌揚而名垂千古。李白曾經(在一首題為《高句麗》的詩中)

IV. 중국네티즌들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선정은 한국무용 관람 경험이 있는 한국거주 중국 유학생들 중 성균관 대학교 공연예술협동과정과 동양철학과, 단국대학교 대학원국문과에 재학 중인 20대 전후의 여성과 남성 10명을 선별하여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심층인터뷰를 통한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10개의 문항을 통해 한류에 대한 이해도와 인터넷의 사용현황, 그리고 한국무용에 대한 이해 등을 선행연구 김윤희의 2001년 박사논문에서 자료수집 방법을 참고하여 집중적으로 인터뷰하였다. 연구진행에 있어 진지한 답변을 듣고자 연구 참여자의 허락 하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간

〈표 7〉 한국 거주 중국네티즌들의 한류를 통한 한국무용 인식에 대한 질문지

1. 한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2. 하루에 인터넷은 몇 시간 정도 이용하는가?
3. 주로 검색사이트는 어디를 이용하는가?
4. 한국무용에 관한 사이트를 방문해본일이 있는가?
5. 한국무용을 공연장에서 본 일은 있는가?
6.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가?
7. 본 소감을 말해 달라?
8. 인터넷상에서 한국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9. 한국무용에 관한 웹사이트가 활성화 되면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10. 한국무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寫道：金花折風帽，白馬小遲回。翩翩舞廣袖，似鳥東海來。
 這種舞蹈在中國演出的時候，李白詩句的歌唱聲隨着舞姿在空氣中回蕩。
 韓國宮廷舞蹈的名稱展示了花鳥的形象：《美人摘牡丹》、《有鳳來儀》、《夜鶯》和《鶴舞》。
 在1418年登位的偉大的朝鮮王朝國王世宗既愛好文學、天文學和美藝術，
 也同樣愛好音樂和舞蹈。他把音樂和舞蹈分成三部分，並改變宮廷樂師和舞蹈演員的服裝。
 他的孫子成宗命人撰寫關於韓國音樂和舞蹈的集大成的書籍《樂學軌范》，
 這部書描述了在再現這些古老的藝術作品方面仍然採用的舞蹈動作、服裝、道具、
 程式和樂器。韓國很幸運，能有這些昔日流傳下來的瑰寶，
 並且有國立國樂院的能把這些瑰寶重新展現出來的藝術家。
 早期的記載表明，高貴的宮廷青年“花郎”（新羅的青年精英組織）
 的出現早於宮廷女舞蹈演員。有一個時候，男青年組織成員只為國王及其大臣跳舞，
 而女舞蹈演員只為王后及其宮廷跳舞。

에 맞춰서 강의실, 학생휴게실에서 녹취로 실시되었으며 자료응답 시간은 1시간정도 소요 되었다. 질문의 10개 문항은 <표 7>에 나타나 있으며 심층인터뷰에 의한 답변에서 이름은 이니셜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답변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들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연구자가 수정하여 답을 쓸 수 있으나 생동감이 떨어지는 관계로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표 8>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그 결과물로 제시하였다.

<표 8> 한국거주 중국네티즌 10명의 한국무용인식에 대한 심층인터뷰 답변

유학생 문항	M,J,J	D,D	J,M,Y	J,B,C	W,P,P	W,O,B	W,P	J,H,Y	W,G	P,S,H
1문항	알고있다	알고있다	알고있다	알고있다	알고있다	알고있다	알고있다	알고있다	알고있다	알고있다
2문항	5-6시간	4-5시간	5-6시간	1-2시간	2-3시간	2-3시간	1-2시간	4-5시간	4-5시간	2-3시간
3문항	a,b,c	a,b,c	a,c,d	a,b,c	a,c,d	a,b,c	a,b,c	a,b,c	a,b,c,d	a,c,d
4문항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5문항	3번	3번	2번	2번	3번	2번	4번	2번	2번	1번
6문항	잘모른다	조금안다	조금안다	조금안다	잘모른다	조금안다	조금안다	조금안다	잘모른다	잘모른다
7문항	e,f	e,f,g	e,f	e,g	e,f,g	e,f	e,f,g	e,f	e,f	
8문항	-	-	-	-	-	-	-	-	-	-
9문항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10문항	-	-	-	-	-	-	-	-	-	-

* 3문항 : 대중예술 - a, 패션 - b, 핫 이슈 - c, 그 외 - d로 표기

* 7문항 : 예쁘다, 화려하다, 신이난다 - e, 역동적이다 - f, 슬프다 - g로 표기

* 8, 10문항은 내용과 연계시켜 대체적으로 나오는 대답들을 결론적으로 서술함

응답자 모두는 1문항인 ‘한류’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사용목적에 있어서 한국무용에 대한 사이트방문은 단 한명도 볼 수가 없었으며 한국무용을 본 응답자들 역시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았다.

D,D : “아! 나 봤어요, 그 사람들 얼굴 참 예뻐요, 근데 슬퍼요. 흰 수건을 하늘로 날리면서 하던데 모두들 조용히 봤어요. 아 그리고 머리에도 뭐 쓰고 나오던데”

M,J,J : “한국 무용하는 사람들 학교에 한번 왔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 많이 봤는데 조금씩 밖으로 많이 나갔어요, 끝날 때에는 학생들 많이

없었어요.”

W.P: “보면서 슬펐어요, 그리고 한이 많은 것 같아요, 통 같은 것 메고 춤도 췄는데, 그게 뭐지... 아! 장구춤 맞아요 그거 같아요.”

J.B.C: “흰색 옷 입고 춤췄는데... 그리고 악기 가지고... 사물놀이요. 그리고 예쁜 옷 입고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무대를 빙빙 돌면서 춤췄어요. 우리 모두 신이 나서 같이 웃었어요.”

W.P.P: “저는 부채춤 봤어요. 넘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 조명이 화려한 것 같고 뒷배경도 상당히 예쁜 것 같았어요.”

J.M.Y: “가면 쓰고 나오던데 근데 춤은 많이 웃겼어요, 탈춤이라고 하던데 넘 신이 나서 나도 같이 춤을 췄어요. 근데 옷이 참 이상했어요, 그리고 가면은 조금 무서웠어요”

W.O.B: “많이 슬펐어요, 한이 느껴지기도 하구요, 춤추는 사람 표정이 꼭 우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나와 춤추면서 원을 만들었어요.”

J.H.Y: “부채 들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악기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대에서 빙빙 돌면서 춤추는 사람도 나오던데요”

W.G: “저도 학교수업시간에 봤어요, 무용수들이 예쁘고 키도 많이 커요, 전 재미있게 봤는데 다른 학생들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갔어요”

P.S.H: “북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도 냈어요, 그리고 무대도 돌고 나중에는 머리에 흰 띠를 돌리는 사람도 나왔어요”

응답자들은 인터넷을 거의 대부분이 7년 이상을 했다고 했다. 인터넷 사용시간은 대체적으로 4시간 이상이며 그들은 인터넷을 볼 때 유명한 연예인의 사진, 인기가요, 그리고 드라마, 패션, 핫 이슈 등을 본다고 했다. 이중 여학생들의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남학생은 듣는 입장을 취했다. 본 연구의 주제인 한국무용은 북경에서 공연 하는 것은 봤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무용을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현지에서 한국무용을 볼 때 여학생들 대부분은 무용수가 ‘예쁘다’ 라고 답했으며 또한 내용이 ‘슬프다’ 고도 했다. 부채춤이나 장고춤은 ‘화려한 것’ 같다고 했으며 사물놀이는 ‘신이 나고’ 탈춤은 같이 어깨춤을 추었다고 했다.

8문항에서의 응답자들의 답변은 대체적으로 다양한 웹사이트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핫 이슈 같은 곳에 소개가 된다면 클릭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10문항에서는 중국 사이트에는 한국무용에 관한 사이트가 거의 없으므로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인터넷상에 많은 창이 뜬다면 관심을 갖고 클릭을 할 것이라

고 답변했다. 또한 대중 스타의 활용방안을 말하면서 대중 스타를 통한 한국무용 홍보와 패션 웹사이트에 한복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무용의 옷과 동영상도 같이 넣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의 글에서 네티즌들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했으나 한국무용에 대한 용어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앞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무용에 관한 인식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9〉 한국거주 중국네티즌들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

유학생 문항	M.J.J	D.D	J.M.Y	J.B.C	W.P.P	W.O.B	W.P	J.H.Y	W.G	P.S.H
예쁘다	○	○	×	○	○	×	○	○	○	○
화려하다	○	×	○	×	○	○	○	○	×	×
신이난다	○	×	○	○	×	×	○	○	○	○
아름답다	○	○	×	○	○	○	○	○	○	×
웃긴다	○	×	○	×	×	×	×	×	×	×
슬프다	×	○	×	×	×	○	○	×	×	×

요컨대, 중국 네티즌들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한국무용은 우아하면서도 선이 고우며, 장중하면서도 경쾌한 동작과 송고미를 내재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네티즌의 인식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특히 작품의 장르를 통해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무와 살풀이 그리고 장구춤과 탈춤 등의 관극을 통해 한국무용의 특성이 재미적인 요소와 보여 지는 외형에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극소수만이 한국무용을 접했을 뿐 대부분은 한국무용이란 말에 생소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공연을 본 관객 역시 ‘얼굴이 예쁘다’ ‘슬프다’ ‘한이 느껴진다’ 라는 짧은 단답형의 답변을 보면 한국무용의 내용적인 측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할 것이다. 또한 한국무용의 용어에 있어서도 ‘어떻게 생겼는데’ ‘부채 들고 하던데’ ‘악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가면 쓰고 하던데’ 등 용어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무용에 대한 이해도는 거의 백지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네티즌들에게 있어서 한국무용 역시 백지상태라고밖에 할 수 없다. 왜

나하면 한국무용에 관한 사이트가 거의 없으며 홍보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대중예술과 패션, 그리고 핫 이슈 등에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대중문화가 중국에서의 위상을 떨친 것처럼 순수예술인 한국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판단된다. 대중문화처럼 일반인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한국무용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을 살리면서도 대중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21세기 인터넷 문화가 가져온 혁명은 공간적 개념을 넘어 동시간대에 한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의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한류를 통한 중국네티즌들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류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작으로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대중예술이 갖는 인식과 그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것이 어느 정도 깊숙하게 스며들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중국 네티즌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한국무용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2의 한류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류를 통한 중국네티즌들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 인터넷에 나타난 한국무용을 살펴본 결과 대중예술이 한류라는 거센 물결을 일으킨 반면 한국무용은 그들에게 있어 인지도가 부족하고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리고 중국네티즌들의 일반인 글이라기보다는 그 작품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해설자적 입장에서의 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흔히 말하는 인터넷상에서의 댓글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2008년까지 중국의 인터넷 검색창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글들이 2009년에 와서는 그 이전의 글들을 포함해 한국무용에 관한 내용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대중예술의 한류흐름을 타고 순수예술인 한국무용 역시 그들의 관심 속에 접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기사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학술교류차원에서의 한국무용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무용을 민족

춤으로 소개하고 있다. 내용면보다는 김현숙이라는 안무자의 개인 경력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부채춤과 장구춤이라는 이름만 소개할 뿐이다(출처: 아래 인터넷 주소).

<http://www.sdtv.com.cn/news/newsshow.jsp?xwbh=200412G2521&yblm=N002>,

인천시와 중경시의 교류로 이어지는 인천시무용단의 두 번째 기사는 상당한 교류의 진전을 의미하며 기사 내용 역시 제목과 내용을 소개하면서 인물보다는 작품의 내용에 치중한 점은 한국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기사로 해석할 수 있다(출처: 아래 인터넷 주소).

<http://cq.qq.com/a/20071217/000079.htm>

국수호가 안무한 천무는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이 민족춤에서 한국고유의 전통문화를 소개 하는 기사로 그 내용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중예술과 마찬가지로 한국무용의 내용과 무대 매커니즘 또한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출처: 아래 인터넷 주소).

<http://bjyouth.y.net.com/article.jsp?oid=42244204>.

아래 두 기사는 위의 기사와는 달리 한국무용에 관한 역사적 자료로서 소개하고 있다.

<http://www.ddcei.gov.cn/html/20050628162333802.html>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2-06/13/cotent-438328.htm>

위의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학술교류차원에서 시작된 한국무용이 이제는 점차 대중예술과 마찬가지로 공연예술로서의 인식으로 바뀌면서 제2의 한류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 속에서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이 민족춤에서 전통을 소개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중으로의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거주 중국네티즌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그들은 ‘예쁘다’, ‘화려하다’, ‘신이난다’ 라는 아주 짧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요컨대 그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내용에 대한 이해는 전혀 알지를 못하였고 시각적인 형상으로서의 모습만을 보는데 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상에 나타난 한국무용에 대한 소개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학술로부터 시작한 교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류로 연결 지어지며 또한 한국무용의 안무자 그리고 공연에 대한 내용들이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관극 포인트까지 설명한 점 등은 상당한 성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한 유학생들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이 거의 대중예술에 집중되어있으며 또한 패션이나 핫 이슈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상에서의 한국무용에 관한 창(窓)이 좀 더 분석되어 대중 취향에 맞는 방법으로서의 전환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무용이 대중과 함께 숨쉬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화려하다', '예쁘다', '역동적이다' 등의 인식을 인터넷 창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체적인 디자인과 홍보적 마케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홍보와 마케팅의 전략, 그리고 우리의 순수예술을 알릴 수 있는 다방면에서의 인터넷 창을 만드는데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대학의 무용전공자와 무용학과 그리고 개인단체와 관 단체에서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이렇듯 인터넷을 통해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을 넓힘과 아울러 국가차원에서의 지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한(韓)스타일(HanStyle) 육성종합계획(2007~2011) 즉, 한국 고유문화의 6대 분야(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를 브랜드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획¹⁸⁾에 한국무용 분야는 빠져있다. 개인과 단체의 이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변화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같이 국가적 기관이 홍보를 대행해주는 시스템을 통해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제언해 본다.

대중예술로부터 출발한 한류가 이제는 순수예술로서의 한류로 자리매김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초기 우리의 무분별한 진출에서 오는 착오를 또다시 범

18)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8462>

한다면 잠시 쏟아지는 소나기에 불과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심윤환, 이한우(2006). 『동아시아의 한류』, 전예원.
- 유상철 외(2005). 『한류의 비밀』, (서울: (주)생각의 나무).
- 이은숙(2002). 중국에서의 열풍고찰, 『문학과 영상』 3(2), 31-59.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3). 한류지속화를 위한 중국 니즈 분석 및 교류활성전략.
- 한국인터넷진흥원(2008). 한·중·일 인터넷이용실태비교, 『테마별 이슈분석』 2008년 1호.
- 황윤숙(2008). 2007년 무용계 현황분석, 『문예연감』 2002-2008.
- 허진(2002). 중국의 한류현상과 한국TV 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6(1).
- 김설화(2002). 중국의 '한류' 현상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문, 서울대학교.
- 김세연(2005). 문화상품으로서 전통예술 공연의 발전 가능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윤희(2001). 여자중학생의 무용수업 인식과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창(2006). 중국 인터넷 쇼핑물 구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신홍주(2005). 한국무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임연철(2005). 공연예술 웹 사이트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장미나(2004). 한·중 대학의 무용교육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1) 한국 인터넷 주소

http://kin.naver.com/db/detail.php?dlid=6&dir_id=612&eid=jBvxNHdzSMCEqUH2QBTGvq4Z+y/3Dm1W&qb=x9GxucDHILjpwPs=4
<http://blog.naver.com/dw0421?Redirect=Log&logNo=120028363484>
<http://artsnews.media.paran.com/news/1417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id=084&arti>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8462..>

2) 중국 인터넷 주소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2-06/13/cotent-438328.htm>
<http://www.ddcei.gov.cn/html/20050628162333802.html>
<http://www.sdtv.com.cn/news/newsshow.jsp?xwbh=200412G2521&yblm=N002>
<http://cq.qq.com/a/20071217/000079.htm>
<http://bjyouth.ynet.com/article.jsp?oid=42244204>

논문투고일	2009년	6월	30일
심사일		7월	2일
심사완료일		7월	30일

Abstract**The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Dance of the Internet Users of China Through Hallyu**

Kim Ok-Soon
Sungkyunkawn University

The development the science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is a “revolution” in that it surmounted the limit that comes from the concept of space. Such a revolution is a great achievement as it brought revolution not only in political, social, economic sense but also in cultural aspect. The advent of Internet, among others, has positioned itself as an important tool, as it serves as a bridge among people in different places, helping people to exchange their feelings at the same time, in different places. This research looked into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through this Internet cultur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wind of pop culture has hit hard the enormous Chinese market under the name of “Korean Wave,” also known as “Hallyu.”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a hope to be a foundation for Korean traditional dance, a pure art, to serve a role in a true cultural exchange with its traditional charm of Korea, as the second round of Hallyu.

As a result of the qualitative study in 2009 into Internet users (also called “netizens” in Korea) First, most of Chinese Internet users quite seriously lacked the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dance in general, and they almost had no knowledge. Second, the interpretation on the Interne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Dance About geuchyeoteuna to work gradually, and translate the contents out of the various materials provided. Third, the work of this area of work, or at the national level, was connected to the exchange. Fourth, through in-depth interview, the ‘beautiful’, ‘gorgeous’, ‘more and more interested’, and a brief response to the awareness of dance was in Korea.

keywords: Hallyu(한류), the second Hallyu(제2의 한류), Internet User of China(중국인 터넷 이용자들), understanding of Korean dance(한국무용에 대한 인식), culture exchange(문화교류)